



"중국의 6대 경기부양책, 우리 기업에 신시장 진출 기회"

기사입력 2020-06-22 06:00



中 슈퍼 경기부양책 (CG)[연합뉴스TV 제공]

(서울=연합뉴스) 조재영 기자 = 중국의 강력한 내수 확대 전략이 우리 기업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.

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2일 발표한 '2020년 중국의 6대 정책 방향과 시사점'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.

올해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-6.8%로 전분기보다 12.8%포인트 급락했다. 국제통화기금(IMF)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도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.

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열린 전국 양회에서 중소기업 지원, 시장 및 정부 혁신, 내수 확대, 대외 개방 및 협력, 고용·민생 안정, 환경·에너지 관리 등을 하반기 6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. 이와 함께 재정적자 확대, 특별 국채 및 지방채권 발행 등 6조3천500억 위안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놨다.

보고서는 "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에서 고품질 성장 단계로 변모해왔다"면서 "앞으로도 속도보다는 혁신과 효율을 위한 정책과 안정적인 경제·사회 발전을 뜻하는 '온중구진'(穩中求進·안정 속 진전) 기초를 유지할 것"이라고 분석했다.

이어 "경기 부양책 가운데 소비와 유효투자 진작을 통한 내수 확대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"면서 "자동차·가전제품 등 내구재 교체 수요와 데이터 경제 기반 혁신 제품 및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, 이커머스와의 온·오프라인 결합(O2O) 서비스 등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내수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"이라고 내다봤다.

무역협회 박소영 수석연구원은 "중국의 인공지능(AI)·빅데이터 등 연구·개발 강화는 우리 기업과의 경쟁을 심화시킬 수는 있지만, 협력을 통해 신시장 진출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"고 말했다.

fusionjc@yna.co.kr

- ▶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에서 [구독 클릭]
- ▶ [팩트체크] 초등생 성폭행하고도 여자라서 무죄? ▶ 제보하기

이 기사 주소 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etc&oid=001&aid=0011693489>
